

# 동서고금 선현들이 남긴 지혜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줄 작대기**  
장용철 지음  
여시아문  
9000원

‘인생을 가장 빨리, 후회없이, 기쁨속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작대기속에 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끝이 갈라진 긴 나뭇가지를 다듬어 만든 작대기는 지계를 받치는데 쓰인다. 무거운 등짐을 진 농부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쉴 때 농부를 대신하여 지계를 받쳐주는 작대기는 지계와 한체트이며, 농부의 길잡이도, 약기도 되는 든든한 벗이다.

농부의 손에서 길이 잡들어 까맣게 손대가 묻은 작대기처럼 고단한 인생길에도 무거운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 책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줄 작대기>에 실린 얘기들은 지계를 받쳐주는 작대기처럼 동서고금의 선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처럼 쫓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험한 구석에 지계와 함께 나란히 받쳐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보자.

‘갈등의 문제는 대부분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발생합니다.’

자기중심의 사고로 판단하므로 가족갈등, 사회갈등, 이념갈등등 모든 불화가 발생합니다. 개구리는 연못이 운동장이고, 올빼미는

밤이 낮이고, 구더기는 뽕이 천국이고, 지렁이는 땅 속이 갑갑하지 않습니다. 때로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릴 때 다했던 문도 열리고, 함께 사는 길도 열립니다.’

‘지렁이는 갑갑하지 않다’는 제목의 이야기다. 이 꼭지는 이미 지하철 밭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 계시관에

## 지하철 풍경소리 작가가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친 현대인에게 들려주는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

실린 것이다.

저자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이 가능하게 하는 짧은 글로 긴 감동을 느끼게 하는 풍경소리 계시관의 작가로 활동해왔다.

68편의 글을 살아가는데 보배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오묘한 인생처럼 모범답안을 주지는 못한다.

저자는 “작년에 매화꽃을 피운 매화나무 가지에 올해도 매화가 피지만 그 꽃들은 지난해의 꽃들이 아니다. 다만 매화가 매화로 되기까지의 무량한 과거와 다시 매화로 출



정병례씨의 관화 '함께 사는 길'

러가기 위한 무수한 시간이 그 꽃속에 강물처럼 잠겨 출렁인다. 그렇듯 과거와 미래를 다 몽롱그려 담고,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말한다. 다만 저자는 “이 책이 모든이들에게 매화나무 작대기였으면 하는 한다”는 바람은 숨기지 않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선방, 베일 벗다

## 전국 26개 선방의 구도열기

시민선방을 비롯한 각종 수행공간이 늘고 있지만 스님들의 수행적인 선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닫힌 공간을 찾아 떠나는 책이 나왔다. 바로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기자가 쓴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가 그것.

서 기자는 전통적인 수행방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선원중 25개 선원과 파리 사자후 선원까지 총 26 곳을 직접 방문해 선의 기운이 필필 살아있는 구도현장의 치열한 모습과 선사들의 가르침, 선원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책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선방은 해인사 통도사 백암사 수덕사 송광사등 조계종 5대 총림과 일반신자들의 접근이 불허되는 문경 봉암사, 한암 스님의 수행방향이 살아있는 상원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성철 스님의 수행처였던 대승사 등의 선원이 소개된다. 또 좁은방에 몸을 가두고 정진하는 백담사 무궁선원에서 서귀포 남곡선원까지 주요 선원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밖에 수도사 경성암과 석남사 대원사등 비구니 선원을 찾았다.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지음 | 고조원 | 1만2800원



# 지금 행복한가?

## 큰스님 44명의 “이렇게 살라”

밝고 즐거운 삶의 비결은? ‘그냥 살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등 70세 이상로 조계종단에 적을 두고 있는 44명의 큰스님들은 ‘행복은 지금이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불교신문 장영실 기자가 전국 각 사찰을 찾아 선지식들을 인터뷰 한 뒤 발간한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는 부처님이 말하고자 한 핵심을 짚으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또 큰 스님들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이렇게 살테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오면 좋겠다”고 말한다.

큰 스님들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마음을 바로보아 깨우쳐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또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존 범문집에선 볼 수 없는 재기 넘치고 맛깔스러운 문체도 인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원택 스님(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은 “불교에 문외한이 없어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책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그냥 살라**  
장영실 지음 | 대산출판사 | 1만5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민족사, 석지현외, 75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티벳사자의 서	정신세계사, 피드마삼버바, 2900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 스님, 4000원
· 화두참선	우리출판사, 이계복, 1만3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 25인의 증언 생생히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한암문도회 · 김광식 펴냄  
민족사 | 1만2000원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 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영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대산에 들어가 27년간 산문밖을 나오지 않았던 한암 스님(1876~1951). 스님은 제 정 해 삼학에 철저히였고, 승가오칙(참선 간경 의식 염불 수호기람)을 제시하여 승려의 본분을 가르쳤으며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를 계승하여 철저하게 수행했다. 또 조계종 중흥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선방에서 어록과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고,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좌탑입암하는 등 당시 한국불교의 법을지킨 큰 어른이었다.

이번에 발간된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은 근현대 불교를 연구하는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지난날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제자가 25명을 만나 인터뷰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한 도원 스님(마계사 대비암 주석)은 “한암 스님은 인과를 철저히 알고 사리에 밝았던 분”이라고 말한다. 서울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은 “근검절약에 철저했다”고 회상하고, 조계종 원로의원인 천은 스님과 대구 보광원 조실 회산 스님은 “생불이며 선지식이고 도인이었다”고 평한다. 축서사 선원장 무어 스님은 “철저하고 무섭게 수행하신 스님”으로 기억하고,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충렬씨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던 분”이라고 회고한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성각 스님 지음  
광문각 | 1만4700원



**꿈 미래의 열쇠**  
현오 스님 지음  
대유학당 | 2만원

# 부처님 10대 제자의 극적인 인생

성각 스님(정릉 관음정사 · 작가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집대성한 <부처님의 십대제자>를 펴냈다.

부처님 제자시 12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중에서 10대제자들은 부처님의 분신이자 그림자였다. 10대제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불경에 산재되어 있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성각 스님은 10대 제자들의 극적인 삶과 깨달음을 통해 크고 작은 ‘차이’를 조화의 근본으로,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불교의 세계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성각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수행의 바른 좌표를 알게 하고, 대중들에게는 가뭄길에 내리는 단비처럼

럼 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원한 감로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각 스님은 젊은시절 술한 시련과 좌절, 사업실패의 절망을 불음으로 딛고 SBS 창사특집 3000만원 교료의 드라마공모에 당선했다 작가로 변신. 이후 국방부 사나리온 공모 입상, 한국문예예술진흥원의 장편소설 부문 창작지원 작가가 선정되기도 했다. 스님은 특히 한국인의 끈기와 집념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도 여러편 집필하고 군 복무에 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한 드라마를 집필해왔다. 하지만 난치병을 앓으면서 글쓰는 것을 중단하고 불문에 귀의해 법마를 찾아낸 뒤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 어젯밤 어떤 꿈 꾸셨습니까?

“우리가 미해결사에 대해 고민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것이다”

꿈에 대해 불교 교리에 맞게 유식철학으로 정립한 현오 스님(대지심리연구소 소장)의 <꿈 미래의 열쇠>중 한부분이다.

스님은 “여기에서 미해결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전5식과 제6식의 일이고, 이를 예측하고 푸는 것은 아뢰야식과 이기적인 말나식에 있다”고 한다. 즉 전생을 통해 축적된 경력이 꿈의 소재로 쓰

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상징으로 표현된다고. 또 하나의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말나식이 꿈을 전달하면서 이기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설파한다.

이 책은 불교적 입장에서 꿈을 분석해 전생과 현생의 인과응보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신생활과 수행을 돕는 상담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각 스님은 77년 월정사에 회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미얀마수도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한 뒤 영월 보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 기도 prayer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탁난한 지음 | 김원우 옮김 | 9,000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라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리했을 때, 삶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되짚어 준다. 그리고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꺼내 읽게 되는 책!  
탁난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5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03년 한국 방송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라제리 책  
탁난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9,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탁난한 지음 | 박정민 옮김 | 10,300원